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 방지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7년도에 설립된 환경부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그동안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수탁운영 및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등을 통해 국가 환경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수탁운영업무를 민영화하고 제2의 환경관리공단으로 거듭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5월 4일 환경전문가 국회의원 이석현 씨가 신임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이상호 연합회장이 그를 만나 향후 공단의 방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국가와 공단의 발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감수할 것"



▶**이상호 회장** : 늦었지만 신임 이사장으로서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취임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이석현 이사장** : 저는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 당의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당의 환경정책을 조율했었고, 환경운동연합의 국정정책위 의원으로 일하는 등 평소에 환경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과 함께 큰 감회를 느꼈습니다. 약 2개월여 근무해보니 환경관리공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700여 임·직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환경문화 창달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공단을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고 윤택하게 가꾸어 나가는 환경기술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각오입니다.

▶**이상호 회장** : 환경관리공단의 간단한 소개와 2개월여 동안 파악한 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현 이사장** :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 방지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10여년간은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수탁운영과 설치지원업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 융자업무가 주력사업이었으며,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수탁운영업무를 민간이나 지자체에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신규기능으로 환경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하수도정책 지원업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측정분석, 환경산업·기술정보 보급 등 다

양한 기능으로 개편하여 환경오염 사후처리부터 사전 예방 분야를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기능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단은 그 기능을 크게 3개 분야, 즉 환경오염 측정관리분야와 환경시설 설치·운영지원분야 및 환경산업의 육성·지원분야를 핵심역량분야로 설정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원업무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의 숙원인 맑고 깨끗한 공기·물·토양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호 회장** : 최근 공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이석현 이사장** :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그동안 우리 공단이 운영하던 군산, 화성, 광양, 온산 등 4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공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민간기업인 (주)미래와환경(한솔제지(주)와 공동 수급) 콘소시엄에 위탁관리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관완료 시기인 금년 9월말까지 4개 처리장에 종사하는 운영인력(40여명)에 대한 고용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수업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의 고용승계등을 유도하고, 현재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도 최대한 재배치하여 인력수급을 도모해 나가므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고용조정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호 회장** : 재임기간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석현 이사장 : 공단의 사업구조는 정부의 환경관리 정책변화와 밀접하게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질·대기개선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상수원수질개선사업 등 수질개선분야와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운영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전국 통합시스템구축 등 대기개선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리 공단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해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수도 업무에 있어서도 수량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도 수행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공단이 수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단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기존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의 우리공단 육

성방향인 환경기술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코-2 프로젝트』 및 『환경산업 발전전략』등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자 하는 정책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의 환경(ET)산업 진흥에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환경경영체제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호 회장 : 최근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석현 이사장 :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는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는 0.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추세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시 2100년의 기온은 1.4~5.8℃ 상



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자연생태계 외에도 산업활동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연결한 최초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가입하였으며 2001년 현재 186개국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Non-Annex I)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공통적인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98년 4월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부터는 국회내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작년 환경부로부터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의 CDM사업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수주받아 전국 12개 광역위생매립지에 대한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통계 구축』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 회장** : 일을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현 이사장** : 환경관리공단은 기관의 성격상 정부출연·위탁기관으로서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아 시행하므로써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에 대하여도 관련기관의 협의·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꾸준하게 자율적이고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

습니다.

▶**이상호 회장** : 공단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 환경정보센터'의 운영현황과 향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이석현 이사장** : 우리 공단은 1999년 6월 환경부로부터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로 지정받아 환경산업·기술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설계시공, 실용화기술, 환경시장 등 14개 데이터베이스 약 26만건을 구축하였고, 2000. 4월부터 KONETIC 사이트(www.konetic.or.kr)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사이버컨설팅, 환경산업체의 홈페이지 무료 구축지원, 사이버환경전시관, 메일서비스 등 다양한 환경산업지원서비스를 갖추어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ONETIC은 국내외 환경뉴스, 기술동향, 세미나, 입





찰 및 용역정보 등 시사성 환경소식과 환경시장정보, 설계시공정보 등은 1일 단위로 최신화하여 서비스되고 있으며, 2000명 이상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DB품질 확보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문기관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최신의 우수환경기술 DB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대폭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향후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및 홍보에 필요한 해외환경기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03년 이후에는 국내외 환경상품 유통 및 기술거래를 위한 e-Business 도입 등 환경산업·기술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호 회장 : 마지막으로 전국 환경관리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석현 이사장 : 어려운 국가경제여건 등으로 더욱 열악한 여건속에서 환경개선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최상의 목표로 지향했던 기업문화가 환경중시 사회문화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대처를 요구하는 21C에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기업경영에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환경분야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인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호 회장 :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현 이사장 프로필

♣ 학력 및 주요경력

- 1969. 2 남성고등학교 졸업
- 1978.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7. 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과정 수료 경력
- 1980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중앙운영위원
- 1996 환경운동연합 국정정책위원
- 1996~2000 국회의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새천년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환경부·노동부등 사회부처 당정책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법 추진
(3정조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획단 설치
(3정조위)
새천년민주당 2정조위원장(재경부처)
- 1992. 4 국회의원 당선(제14대) <민주당>
- 1996. 4 국회의원 재선(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 1996 ~ 2000 국회 행정·정부분과위원
- 1996 ~ 2000 국회열린정치포럼(개혁그룹) 멤버
- 2001. 8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주요저서

- 1998 너도밤나무 아래서 쓴 너도밤나무 이야기
(산하출판)
- 1999 환경동화집 : 소라게는 정말 이사했을까
(백성사)